

地域에서 呼應받는 電源開發事業 推進



安 秉 華
〈韓國原子力産業會議 會長〉

존경하는 李鳳瑞 동력자원부장관님과 白石 晶一(시라이시·쇼이찌) 日本代表團長,

그리고 日本代表團과 韓國의 原子力界 人士 여러분,

오늘 제11회 韓日原子力産業세미나의 開會式에 즈음하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로서는 韓國原子力産業會議 會長에 취임한후 처음으로 韓國과 가장 가까운 日本의 原子力界 指導者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韓日原子力産業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의 原子力産業會議가 1979년 4월 부산에서 그 첫번째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11번째를 맞는 모임입니다.

그간 10년간의 세미나에서 두나라는 原子力 技術情報 交換 및 人的交流를 통하여 많은 協力を 하였고 그 성과는 有形, 無形으로 양국의 原子力産業 발전에 貢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原子力發電은 지난 9월 30일 蔚珍 2號機가 商業運轉에 들어감으로써 施設容量이 9기에 7백60만KW를 示顯함으로써 全體 施設容量의 36%, 發電量은 50%를 넘고 있어 명실공히 電力의 主役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原子力發電所의 利用率이 '84년 이래 계속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不時停止도 금년에는 基當 1件 水準으로 向上된 運轉實績을 보이고 있습니다.

最近 數年間 電力需要 成長이 10%를 넘고 있으나, 후속기인 靈光 3, 4號機가 금년에 착공되어 1995, 1996년에 각각 준공되고, 月城 2號機가 1991년에 착공되어 1997년에 준공되면 2000년대까지의 電力에너지문제는 原子力을 통해 큰 어려움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9월 준공된 輕水爐 核燃料 成型加工工場의 稼動으로 核燃料 國産化 自立化 노력이 進一步하였고, 原子力發電所의 엔지니어링, 運轉 그리고 補修技術의 向上을 위한 노력도 점차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原子力開發에 대한 國民의 合意는 앞으로의 原子力産業 振興에 큰 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點에서 日本이나 우리나라 모두에게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날로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明年부터 시행키로 되어있는 “發電所 周邊地域 支援에 관한 法律”에 따라 매년 相當 金額의 基金을 적립하여 發電所 周邊地域을 支援키로 하는 등 地域에서 呼應받는 電源開發事業 推進을 위해 倍前의 노력을 경주할 計劃입니다.

原子力産業은 國際協力の 바탕위에서만 그 平和的 利用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韓日 兩國間의 原子力協力は 다른 어떤 나라 보다 중요하며, 양국의 關係者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友好의 바탕에서 진밀히 協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결성된 “世界原子力發電事業者協會”의 역할과 WANO 東京센터에서 貴國과의 增進된 協力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基調테마가 “原子力發電의 社會的 影響과 國民의 理解”로 설정되었습니다만 오늘부터 이틀간의 세미나를 통하여 성숙기를 맞이한 兩國 原子力産業의 國民理解에 대한 共同關心事에 대해 보다 나은 對應方案을 모색하는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세미나에 참가하신 日本側 代表團과 國內 人士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開會人事를 마칩니다.

感謝합니다.